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일본 약대 방문단,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방문

동국대학교 약학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나고야 아이치가쿠인대학 나베쿠라 교수와 동국대학교 이진용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일본 약학대학 학생들이 8월 22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약학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방문단은 동국대학교병원 약제부를 비롯해 병원과 한방병원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한국 의료시스템과 의약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특히, 한방병원 약제실 방문 시에는 대장금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류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일본 약대생들은 국내 6년제 약대생들의 실무실습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본원의 양, 한방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02 인도 아쌈지역 의료봉사활동 다녀와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전국병원불자회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4 Assam India 국제공익활동'에 병원직원을 파견하는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했다.

안전행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봉사활동은 8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장례식장의 김정대 실장과 약제팀의 김미경 약사가 동참하고 혈압측정, 혈당 검사를 비롯하여 영양수액 투여와 무료투약 등의 의료혜택을 주었다. 특히, 인도 아쌈주의 시바사가 근교에서 시행된 총 4일의 진료기간에는 무려 2,300여 명의 환자가 방문하여 열악한 현지 의료사정의 말해주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구촌 의료자비와 평화를 실현하고 대승사상에 입각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병원 내 법당, 연우회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김미경 약사는 "해외 의료봉사 기회를 주어 감사하고, 진료 후 떠날 때 아쌈주민들이 흘린 감사의 눈물이 한동안 감동으로 기억날 듯하며,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더욱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03 원무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3차 체험교육 시행

원무팀 직원들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8월 26일 오후 6시 본원 2층 심장기능검사실 체험교육을 시행했다.

송혜정 수간호사의 설명으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심장혈관센터 소개 및 검사, 오더, 질병, 수가 등의 이론교육, 검사실별 장비 사용법 등과 이론교육 후에 3개 조로 나누어 직접 검사를 받아보는 체험교육이 진행되었다. 검사 오더 및 수납 시 유의할 점과 그동안 환자 진료비에 대한 궁금점 등은 교육 중 이루어진 토론으로 개선점을 찾는 성과가 있었으며, 6월부터 시행한 체험교육은 횡수를 더 할수록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환우 입장에서 불편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업무능력 강화 3차 체험교육이었으며, 9월에는 신경계검사실에서 신경과 검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04 건강증진센터, 프로야구로 소통의 장 열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속 직원 20명은 8월 28일 채석래 일산병원장과 함께 문학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색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몇 년째 최고 인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던 프로야구경기를 보면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치열한 4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SK와 LG는 9회 말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쳐 야구를 잘 모르는 직원들도 신나게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직원들은 같이 응원하면서 팀워크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고 평소에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로 서로와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찬 건진운영팀장은 "더 많은 직원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20명의 직원이 즐겁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이번 단합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석래 병원장은 "다양한 직종과 파트가 모인 건진운영팀이 서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하계
학생자원봉사활동
소감문 공모 수상작

동국대학교병원 자원봉사활동을 마치며

안곡고등학교 2학년 9반 이 민 재
활동부서 : 82병동

지금까지 다른 여러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병원봉사를 처음 해본 저에게는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첫날이었던 월요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82병동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병동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시트 정리, 얼음 주머니 만들기 등을 하며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셋째 날, 아프다며 울며 엄마를 애타게 찾는 어린 환자와 수술에 들어간 딸을 걱정하며 수술실 앞에서 서성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며 아픈 환우들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과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2병동은 정형외과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하고 계셔서 얼음이 많이 필요해 자주 얼음을 가지러 가게 되었는데, 제빙실이 5층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어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그곳에 방문하는 부부나 할머니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이따금씩 정적을 깨는 아기들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 아이들은 태어난 것부터 너무 힘들겠구나.'하는 생각과 동시에 건강하게 나아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병동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고, 이전처럼 의무적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진실 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린 제가 큰 힘이 되어 줄 수 없어 좀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나중에 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병동에서 일하면서 좋은 것만 느낀 것은 아닙니다. 병동에서 입원 치료하시는 분 중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간병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이 간병인분들이 곁에서 돌봐주시고 계셨는데, 간병인 분들의 봉사정신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물론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바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과거의 '효(孝)' 정신이 지나치게 사라진 것을 느끼며 앞으로 좀 더 섬김이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 리 미

일산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9월 3일(수) 10:00~11:00 |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
강사 : 심장혈관내과 김용석 교수 | 주제 : 관상동맥질환의 예방

뉴스레터 122호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 15일 발행됩니다.